

# “아들아...어떻게 엄마를 장례식장으로 부를 수가 있니”

## 이태원 희생 광주·전남 아픈 사연들

최악의 이태원 헬러윈 압사 사고로 광주·전남에서도 꽃다운 청춘들이 꿈도 펴보지 못하고 스러졌다. 청춘을 잃은 슬픔에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피맺힌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 서울 취업 좋아했는데...취업터 내려갔다 참변

### 집안에서 똑부러지는 맏아들

### 장례식장 부모도 친구들도 비통

“불과 두 달 전 좋은 데 취업했다고 자랑했던 아들이 그렇게 뚝뚝했죠. 군복무도 마치고 취업도 했으니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31일 오전 김모(29)씨가 안치된 광주시 동구의 한 장례식장은 적막한 가운데 소리없는 흐느낌만 이어졌다.

참사 당일 김씨는 ‘취업 성공 축하파티’를 열고 있었다. 김씨는 “토목기사들이 가장 선망하는 회사에 취업했다”며 취업터를 내겠다고 고향 친구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들였다.

김씨는 집안에서 똑부러지는 맏아들이었다. 2018년 광주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국가공인자격증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공부 1년여만에 취득했다. 2년여가 지난 8월 초에는 서울의 유명 토목회사에 취직해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김씨 어머니는 “전날 11시경부터 전화가 안돼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전에 전화도 잘 받던 아이가 왜 그러나 싶었다”며 “새벽 6시 넘어서 경찰이

최악의 이태원 헬러윈 압사 사고로 광주·전남에서도 꽃다운 청춘들이 꿈도 펴보지 못하고 스러졌다. 청춘을 잃은 슬픔에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피맺힌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전화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 중이라고 했는데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4명도 31일 장례식장을 찾아왔는데 비좁은 관에 누운 김씨를 보자 결국 주저앉아 오열했다. 광주와 순천, 포항 등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연락이 끊이지 않던 끈끈한 친구들이었다.

사고 당일 축하파티를 마친 김씨는 친구 1명과 함께 참사 현장에 휘말렸다. 같이 있던 친구는 신발을 잃어버리고 한 다리를 다친 채 현장에서 벗어나 화를 피했지만, 김씨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다른 골목으로 이동했던 나머지 4명의 친구들은 갑자기 김씨의 행방이 사라지자 그를 찾아 새벽 내내 온 거리를 헤맸다. 참사 현장도 살펴볼려 했으나 소방대원들이 통제하고 있어 발만 동동 굴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실종신고도 해 봤으나, 가족이 아니면 실종수사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김씨의 한 친구는 “10년동안 같이 놀았던데다 불과 엇그제만 해도 환하게 웃던 친구가 변을 당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질 않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 큰아버지도 “불과 두 달 전에 좋은 데 취직



광주시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 이태원 참사로 명을 달리한 오모(24)씨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했다면서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씩 돌릴 정도로 정이 많은 아이였다”며 “사람이 그렇게 많았으면 현장 통제가 있어야 했는데, 경찰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우리 세 모녀 행복하게 살자 했는데”

### 목포서 간호사 꿈 키우던 딸

### 뇌사 하루만에 끝내 숨겨

“내 딸, 이제 고생 끝났고, 세 모녀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고 말한게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가니...”

광주시 북구의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모(28)씨의 빈소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만 하염없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문객이 찾아와도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흐느끼던 박씨 어머니는 고인의 사진을 볼 때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여동생 또한 간신히 일어서 조문객을 맞고자 했으나 한 마디 말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박씨 어머니는 “뒤엎힌 사람들 사이에서 저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도 못하겠다”며 “사진 속 눈망울을 보면 금방이라도 ‘엄마’하고 부르면서 달려올 것 같다”고 오열했다.

박씨는 간호사 꿈을 갖고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착실한 딸이었다.

광주가 고향인 박씨는 부산으로 건너가 간호 보조로 근무하면서 일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 대학 학비를 마련했다. 이후 영암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입학해 간호사로서 역량을 키웠다.

2년여 전에는 유명 대학병원에 입사하면서 노력의 결실을 맺기도 했다.

박씨는 목포에서 방을 구해 생활하면서도 매일 같이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할 만큼 정이 많았다고 한다. 박씨 지인들 또한 그를 의지가 되는 사람, 밝고 친근하면서도 힘든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참사 당시 박씨는 목포에서 같은 건물 내 원룸을 얻어 거주하던 친구 노모(28)씨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박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면서도 조파 하루를 버텼다.

병원을 지키던 가족들 또한 “살아만 있어 달라”며 희망을 품고 박씨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초등학생 시절부터 단짝 친구 나란히 하늘나라로

### 정규직 되면 광주로 온다고 했는데

### 부모들 딸들 사진놓고 마지막 이별

초등학생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던 김모(24)씨와 오모(24)씨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된 광주시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

31일 이곳에서는 아침부터 애절한 눈물이 마르질 않았다.

김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참사 직전인 지난 29일 밤 10시경 찍은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태원 길거리 공원을 즐기던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자 부모들의 눈에선 지난 밤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금 터져나왔다.

한참 서로를 끌어안고 다독이던 이들 부모는 31일 저녁 딸들 사진을 인쇄해 식탁에 놓고, 이별을

위한 마지막 한끼를 먹으며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나눴다.

김씨와 오씨는 서울에서든 늘 함께였다. 김씨는 지난 8월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서비스 직원으로 취업해 서울 생활을 시작했으며, 오씨는 지난 2월부터 서울의 한 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서울에서 살았다.

참사 당일 오씨는 정규직 전환 채용시험 필기전형 합격에 기념하고자 김씨와 함께 이태원에 가고 뜻을 모았다.

오씨 아버지는 “합격기념으로 놀러 간다는 말에 기쁜 마음으로 ‘잘 놀다 오라’고 했는데 그제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몰랐다”며 말 끝을 흐렸다.

이어 “시험에 합격했다고 곧장 가족에게 전화하는 딸이었다. 정규직이 되면 고향인 광주로 발령받을 수 있다고. 다음주 면접까지 마치면 광주 한 번

찾아가겠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던 게 계속 맴돈다”고 말했다.

김씨 또한 항공관광과를 졸업해 밝고 활발했던 딸이었고, 취업 2개월만에 최근 승진을 하는 등 늘 기쁜 소식을 안겨 주고 있었다. 참사 전날인 외할머니 기일에도 친척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가족들은 한없이 김씨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김씨 아버지는 “지난달이 딸 생일이었는데 축하한다면서 용돈 보내 준 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다”며 “조금이라도 더 자주,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또 “딸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심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위험한 산이나 바다도 아니고 사람 많은 골목에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니 황망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집안의 기둥이자 가족의 자랑이었던 내 아들”

### 변호사 자격증 취득 공기업 근무

### 엄마는 아들 이름만 부르며 오열

“어떻게 나를 장례식장으로 부를 수가 있니, 아들아...”

차모(42)씨의 어머니는 31일 광주시 광산구의 장례식장에서 아들 이름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영정 사진을 아루만졌다.

차씨 어머니는 참사가 발생하기 불과 1시간 30분 전까지도 아들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 서로 안부를 주고 받던 사이 차씨 어머니는 “너만 건강하면 다른 걱정 하나도 없다”고 아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차씨는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자 가족의 자랑이었다.

광주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차씨는 전남대로 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울의 한 금융기업에 취직해 근무하고 있었다.

차씨 아버지는 “아들은 평소 독서가 취미였는데, 집 안에 책이 깔도 없이 쌓여 있을 정도”며 “공부벌레인 아들이 주말에 이태원 거리에 놀러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다. 그래서 이태원 뉴스를 보고도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덩치도 크고 과묵한 성격이었던 아들이 어쩌다 그 시골벽적인 거리에 갔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현실이 아닌 것 같다”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차씨의 어머니는 “지난 8월 아들의 서울집에 놀

러갔다. 그 때가 아들의 얼굴을 본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더 자세히 봐들걸, 우리 아들이 이제 어떻게 사나”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차씨 부모는 참사 이틀날 정오가 돼서야 경찰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시신이 경기도 일산 동국대병원에 있으며 사인은 ‘압사’로 추정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차씨가 이태원에 누구와 갔는지, 왜 갔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차씨 부친은 “아들이 쓰던 휴대전화가 아이폰이라 비밀번호 해제를 경찰도 못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날 저녁 아들이 이태원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인 31일 광주시 북구 공무원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는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